

창저우시, 석유화학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유일한 석유화학공업 도시 창저우(滄州)시 정부가 한국을 방문해 석유화학 관련기업가를 모시고 석유화학공업 투자환경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저우 시정부와 창저우시에 조성된 석유화학 전문 산업단지 린강(臨港)화공원구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해 6월23일(목)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투자환경 설명회에 진행한다.

창저우시는 중국 허베이(河北)성에 위치한 도시로 발해만과 접해 있고, 특히 창저우시에 건설되고 있는 황화강은 닝보(寧波), 렌윈강(連雲港)에 이어 3번째,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유일한 액체화학제품 전용항만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창저우 시정부는 창저우시를 중국 최대의 석유화학 전문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5/19>